

## ‘귀한 수돗물이 칼칼’...광주서 열흘새 상수도 사고 잇따라

동구 소태동 상수도관 균열 4시간여 만에 긴급 복구  
 도시철도 2호선 터파기 중 상수도 연결부 잇단 파손  
 정수장 노후 밸브 고장에 2만 8000가구 이틀간 단수  
 광주시, 단계별 정비 계획 추진...수도관 절반이 노후

오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에서 최근 열흘 사이 상수도 시설 사고로 누수·단수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광주 동구 소태동 무등중학교 건너편 지하 매설 상수관로(지름 100mm)가 파손됐다.

소규모 관거라서 일대 단수 사태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관로에서 새어 나온 수돗물이 주변 도로로 흘렀다. 정확한 누수량은 오후 3

시 전후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 복구에 나선 상수도본부는 길이 3cm가량의 균열을 발견, 누수방지대를 덧대는 방식으로 긴급 복구는 4시간여 만에 마쳤다.

상수도본부는 관거 자연 노후에 따른 단수 누수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남구 백운동 도시철도 2호선 4공구 주변에선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배수관(상수도 시설)이 뒤뉘리면서 연결부가 파손됐다.

상수도본부가 14시간 만에 긴급 보수 작업

을 마쳤으나, 수돗물 수질 우려로 남구 주월동·진월동 일대에는 수도 공급이 이튿날 오전 8시부터 정상화됐다.

이달 14일 백운동 백운동광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서도 지하 터파기 작업 도중 상수도관 연결 부분이 부셔서 수돗물이 시간당 60씩 세 시간 동안 쏟아졌다.

지난 12일 오전에는 광주 지역 주요 정수장 중 하나인 덕남정수장에서 수돗물 유출 밸브 고장으로 남구·광산구 일부 지역 2만 8000여 가구가 이틀간 단수 피해를 입었다.

대규모 단수 사태 사흘 만에 가동된 광주시장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대책으로는 ▲정수장 대형 송수관로 밸브 56개 점검 ▲노후상수도관 단계·연차별 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 등을 내놨다.



22일 오전 7시 40분께 광주 동구 소태동 무등중학교 건너편 지하 매설 상수관로(지름 100mm)가 파손, 새어 나온 수돗물이 주변 도로로 넘쳐 흐르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한편 광주시 상수도관은 4046km로, 이 중 절반인 2013km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관거로

집계된다. 누수율은 5.7%로 특·광역시 평균(4.2%)보다 높다.

정승호기자

## 3년 만에 열린 대면 학위수여식...“일상 돌아온 것 꿈만 같아”

대면 학위수여식 치른 광주대  
 학사모 날리는 일상으로 ‘복귀’

“돌아온 일상 속에서 졸업할 수 있어 꿈만 같아요.”

22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2022학년도 전기 제38회 학위수여식이 열리면서 이른 시간부터 졸업생을 비롯한 인파가 몰렸다. 졸업생과 학부모, 친구들은 푸른 인조 잔디가 깔린 운동장에 모여 기념 사진 촬영 삼매경에 빠졌다. 이들은 카메라 셔터 소리에 파묻힌 채 저마다 유행하는 포즈를 취하거나 일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학교 본관동 앞에서는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모여 단체로 학사모를 던졌다.

감격에 북받친 듯 지도 교수에게 안겨 감사 표시를 하는 졸업생, 정든 학교를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학교 건물을 한참 바라보는 졸업생도 있었다.

각양각색의 표정이 이어졌지만 입가에는 마스크 대신 초승달같은 미소가 걸려있었다. 광주대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이날



22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에서 열린 2022학년도 전기 제38회 학위수여식에서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학사모를 날리고 있다.

대면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감염 확산세가 절정에 달했

던 2021년 2월에는 학위수여식 자체를 취소, 졸업 축하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감염 확산세가 줄고 마

스크 실내·외 의무착용 지시가 점차 해제되면서 예년처럼 학위수여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은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치러진 학위수여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졸업생 박재원(24·여·간호학과)씨는 “학교 생활 대부분을 코로나19와 함께 해왔다. 수업처럼 졸업식도 화상으로 대체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며 “일상으로 돌아와 학위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어 꿈만 같다. 함께 공부한 동기들이 일상 속에서 멋진 사회인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부모 최아라(58·여)씨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위수여식이 진행되는데 낯설고 풀려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 새삼 느껴진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생했을 아들이 대견하다. 오늘 하루 만큼은 취업 걱정 없이 졸업의 기쁨만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날 광주대는 학사 1472명, 석사 178명, 박사 33명 등 총 168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김동진 총장은 “졸업생 모두가 모두가 끊임 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학교의 자랑스런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재환기자

## 경유 가격, 휘발유와 ‘4원’ 차이...이르면 주중 ‘재역전’

올해 들어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유업체는 이르면 주중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지는 ‘재역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ℓ) 당 1579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일 리터 당 1554원에서 25원 올랐다.

전국 휘발유 평균가는 이달 1일 리터 당 1577원으로 상승했고, 6일 158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577~1579원 선을 유지 중이다.

반면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가격은 리터 당 1583원까지 하락했다. 1월 1일 리터 당 1718원보다 135원 떨어졌다. 경유 가격은 꾸준히 내림세로, 지난 1일 리터 당 1647원과 비교해도 64원 내렸다.

이 같은 현상은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했다. 휘발유 가격 인상의 경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경유 가격 하락은 난방 수요가 줄며 국제 경유 가격이 낮아진 것이 주효했다.

최이슬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GOOD DESIGN KOREA

2023 전남드래곤즈 홈 개막전

K LEAGUE 2 40th ANNIVERSARY

# 전남은 THE 전남답게

전남드래곤즈 vs FC안양

23. 03. 01 WED 13:30 광양축구전용구장